

## 韓國의 長壽動向과 그의 相關要因에 관한 分析

趙 留 香

(木浦專門大學)

.....〈目 次〉.....

- |          |                |
|----------|----------------|
| I. 序論    | III. 研究結果 및 考察 |
| II. 研究方法 | IV. 結論 및 提言    |

### I. 序 論

오늘날은 醫學 및 公衆保健學의 發展과 生活水準의 向上 등으로 平均壽命이 延長되어 老人人口가 增加趨勢에 있다. 따라서 老人人口의 健康問題 및 老後生活의 安定 등 老人問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世界保健機構(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1982年을 老人의 해로 정하고 老人福祉增進에 힘써 오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老人의 平均余命을 더욱 延長시키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즉 長壽에 대한 調査 및 長壽에 關聯되는 要因에 관한 研究가 계속되고 있다 하겠다.

實際, 長壽에 관한 Leaf A.의 資料에 의하면, 世界의 代表的인 長壽地域으로 有名한 곳은 Ecuador의 Vilcabamba 地域, 소련의 코카사스산맥부근의 아브가시아 地域과 파키스탄의 훈저 地方(히말라야산맥 부근)이 있는데, 이들 地域의 공통점은 모두 1,000m가 넘는 고산 지역이며 農耕地帶로써 運動量이 많은나 그에 比해서 육류 등 단백질의 섭취량이 不足한 點 등이 꼽히고 있다(Leaf A.1975). 즉 長壽要因은 영양상으로는 抵칼로리이며, 동물성지방의 섭취가 적고 기후조건이 온화하며 高原의 조용한 地理的 環境이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하겠다.

그러나 Vilcabamba 地域은 1971年 人口調査에서 全人口에 대한 60歲以上의 人口가 11.4% 였다고 報告하였으나 再調査에 의해 7.0%인것으로 밝혀졌으며, 1974年과 19

78年의 2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세계기록 및 死亡에 關한 記錄調査結果, Centenarian<sup>1)</sup>은 모두 100歲가 아니었으며, 이들의 실제 年齡은 75~94歲로 추정되었고 平均年齡이 86±5歲 등으로 長壽地域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Mazes R.B., Formen S.H., 1979). 또한 日本의 松崎의 研究에 의하면 Vilcabamba 長壽地域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理由로는 長壽村이 있는 國家의 平均壽命이 짧고, 130~150歲의 老人이 전혀 없으며, 100歲를 基準으로 하는 Centenarian의 比率이 1971年 人口 10萬當 1,100名, 1976年 372名으로 高率이라는 일지안되는 點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日本의 경우는 단백질의 섭취가 수시로 可能하였고 물자의 수송이 대체로 수월하였던 海岸地域(西日本)에 100歲以上의 老人이 많다고 報告하고 있다(松崎後久, 1982).

한편 原田의 研究에 의하면 日本內에서 長壽地域으로 불리우는 地域의 老人은 영양상태 및 食習慣 등의 食生活은 물론 生活全般에 關하여 特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쌀을 주식으로 하며 부식으로는 야채를 많이 먹고 육류를 적게 먹으며, 農業에 從事하는 老人일수록 長壽한다고 하여 代表的인 長壽地域의 特徵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原田 ヨシ子 1968).

우리나라의 長壽地域은 1986年 現在 20代 長壽 마을 중에서 9個 마을이 지리산 부근에 位置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高山地域이라는 地域的 特性과 함께 그에 따르는

諸特性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 長壽地域에 관한 具體的인 調查, 研究資料가 충분치 않은 實情으로 諸特性에 관한 것은 밝혀지지 않은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平均壽命은 1975년에 男子 63歲, 女子 68歲로 發表되고 있으며, 1986年 現在에는 男子 64.9歲, 女子 71.3歲로 1960年代 以後 꾸준히 伸張되어 全人口中 65歲 以上の 老人人口比率이 1955年 3.3%에서 1986年 4.6%로 30年間 미미한 增加였으나, 2000년에는 7.0%로 今後 急速하게 高齡化社會에 돌입할 것으로 推計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要請된다 하겠다(保健社會部, 1987).

그러기 위해서는 老人問題에 관한 諸活動과 研究事業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老人에 관한 諸課題中에서 社會學的 分野 및 人口學的 分野에 대한 內容이 대부분이었으며, 健康과 관련된 研究는 물론 長壽에 관한 研究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老人을 對象으로 한 長壽에 관한 研究는 老人을 위한 政策樹立上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課題라고 본다.

그러므로 長壽하는 老人의 數가 增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長壽의 動向을 보는 것은 保健醫療政策上 意味있는 것이며, 特히 長壽老人이 많은 地域의 파악과 함께 이들 地域의 地域의 特性을 살펴 보는 것은 長壽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더욱 研究의 意味가 부여되는 分析이라고 하겠다.

本 研究는 이러한 觀點에서, 첫째 長壽의 動向을 보는 것으로 長壽에 관한 指標을 利用하여 1955년부터 1985년까지의 過去의 年度別 推移와 將來 展望 및 地域間의 差異를 檢討할 것이며, 둘째 長壽者率에 影響하는 要因을 거시적 水準에서 파악하고자 社會·經濟的 要因과 人口·環境의 및 都市化 要因과의 相關關係를 分析하는 目的을 두고 있다.

## II. 研究方法

### 1. 資料

本 研究는 5年마다 實施되는 經濟企劃院의 各 市道 人口센서스 資料를 利用하여 長壽者率의 統計的 分析을 하였으며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55~1985), 長壽者率의 將來 推計를 위해서는 韓國人口保健研究에서 推計한 人口統計資料를 使用하였다(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한편 長壽者率에 관한 重回歸分析을 위해서 使用된

獨立變數에 대한 資料는 各 地域別 統計資料가 必要로 되므로 各 市道別 統計年報, 韓國 통계연감 및 保健社會統計年報를 使用하였다.<sup>2)</sup>

現在 65歲以上 老人의 數는 過去 出生申告의 지연으로 인하여 實際와는 다소 差異가 있을 것으로 思料되었으나, 統計資料에 근거하여 그대로 使用하는 것으로 하였다.

### 2. 分析方法

長壽者率의 統計的 分析은 近藤式 長壽者率에 근거하여 全體 人口中 70歲以上 老人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을 長壽者率로 算出하였다(松崎俊久, 1985). 그리고 全體 人口中 老人人口의 比率은 65歲以上 年齡層으로 하여 年齡構造係數을 보았으며, 또한 65歲以上 老人人口中 75歲以上の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과 더불어 이들의 增加指數를 檢討하는 것으로 하였다.

近藤式 長壽者率은 우리나라의 平均壽命이 1987年 現在 男子에서 65.8歲, 女子에서 72.2歲라는 點을 감안할 때 70歲라는 年齡보다 더 사는 老人의 集團을 長壽者로 보았기 때문에 妥當한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產業構造의 變化와 高度의 經濟成長에 의해서 農村의 젊은 人力이 都市로 流出되었다는 點에서는 長壽者率이기 보다는 過疎率이 될 수도 있는 制限點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長壽에 影響하는 相關因子를 把握하기 위해서는 統計的方法中에서 段階의 重回歸分析(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重回歸分析에서 從屬變數는 近藤式 長壽者率과 全體 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및 老人人口中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로 區分하여 分析하였다. 獨立變數로는 地域의 人口學的 要因, 環境的 要因, 社會·經濟的 要因, 保健醫療的 要因(保健醫療資源 要因포함) 및 都市化 要因 등이 長壽에 影響할 것이라는 假定下에 이들 要因에 대한 指標로 11個를 選擇하였다. 各 要因別 從屬變數와 獨立變數(說明變數)는 다음과 같다.

#### 從屬變數

65歲以上の 老人人口比率: 全體 人口中 65歲以上の 老人人口가 차지하는 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全體 人口中에서 70歲以上の 老人人口가 차지하는 比率(%)

老年後期 老人人口의 比率: 65歲以上の 老人人口中에서 75歲以上の 老年後期 老人人口가 차지하는 比率(%)

**說明變數**

人口學的 要因 : 人口密度(Km<sup>2</sup>당)

環境的 要因 : 全體 面積에 대한 임야면적의 比率(%)  
 평년기온(℃) 평년습도(%) 全體 地域人口中에서 農家人口의 比率(%)

社會·經濟的 要因 : 상수도 보급율(%) 1人當 地方稅 부담액(원)

保健醫療的 條件 要因 : 人口1,000名當 病床數(床) 醫療保險適用人口의 比率(%)

都市化 要因<sup>9)</sup> : 人口1,000名當 자동차대수(대) 人口轉出率(%)

이와 같은 長壽에 關聯하는 從屬變數에 대한 重回歸分析은 最近의 1985年度의 市道別 資料를 中心으로 해서 分析하였다.

**Ⅲ. 研究結果 및 考察**

**1. 長壽에 관한 統計的 分析**

長壽의 動向을 보고자 長壽에 관한 統計的 分析을 위해

서는 全體 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및 全體 65歲以上 人口中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을 보고, 同時에 各各의 增加指數를 살펴 본 것이 <表1>이다.

全體 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은 1955년 3.3%에서 1985년 4.3%로 30年間 1.0%가 增加되었으나, 1955年을 100으로 하여 본 增加指數는 1985年 130이었음을 알 수 있다. 近藤式 長壽者率의 全國的 推移를 年度別로 보면, 1955년에는 1.7%였던 것이 1985년에는 2.5%가 되어 30年間 0.8%의 增加率을 보였으나, 1955年을 100으로 하였을 때 30年間的 增加指數는 147로 全體 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의 增加보다 높게 나타나 長壽者가 增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5歲以上 老人人口中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은 1955年 22.8%, 1985年 30.0%로 30年間 7.2% 增加하였으나, 增加指數는 1955年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85年 132로 65歲以上 老人人口中에서 75歲以上의 老人이 增加하고 있는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5歲以上의 老人人口中에서 80歲以上의 老人人口比率을 算出해본 結果, 1955年 7.7%, 1985年 12.2%로 4.5%가 增加되었다. 이는 老年後期 老人의 增加(7.2%)보다는 低調한 편이었으나

표 1.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및 長壽者率의 年度別 推移

單位: %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長壽者率	老年後期老人比率	80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총인구(名)
1955	3.3 (100)	1.7 (100)	22.8 (100)	7.7 (100)	21,502,386 (100)
1960	3.3 (100)	1.8 (106)	- (-)	- (-)	24,989,241 (116)
1966	3.3 (100)	1.8 (106)	26.7 (117)	8.8 (114)	29,159,640 (136)
1970	3.4 (103)	2.0 (118)	27.8 (122)	10.9 (142)	31,435,252 (146)
1975	3.5 (106)	2.0 (118)	28.1 (123)	11.1 (144)	34,678,972 (161)
1980	3.9 (118)	2.2 (129)	27.7 (121)	11.9 (155)	37,406,815 (174)
1985	3.9 (130)	2.5 (147)	30.0 (132)	12.2 (158)	40,419,652 (188)

註) ( )은 1955年度를 100으로 한 增加指數이다.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人口 및 주택센서스 조사, 1985, 1987

增加指數는 1985年 現在 158로 가장 크게 增加하여 80歲以上 老人이 현저하게 늘어나고있음을 알 수 있다. 老年後期에서는 健康狀態, 日常生活動作能力 및 身體機能의 低下가 급격히 低下한다는 點에서 볼 때 1985年 現在 全體 老人人口中 75歲以上의 老年後期 老人이 30.0%라는 것은 老人保健事業의 主要 서어비스 對象者가 되는 老人人口가 全體 老人中 적어도 30%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美國은 1980年 老人人口가 2,400萬名 인데, 이 中에서 75歲以上의 老年後期 老人은 940萬名으로 39.2%를 차지하고 있었다. 特히 美國老人의 壽命의 延長으로 인하여 75歲以上의 老年數의 增加는 65~74歲의 老年前期 老人數의 增加를 上回하여 2000년에는 1,240萬名, 2030년에는 2500萬名으로 豫測되고 있다(C.Call pegels, 1984). 우리나라도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因하여 將來 老年後期 老人의 數가 增加될 것으로 豫想되어 이에 대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表2〉는 老人人口比率, 長壽者率 및 老年後期 老人比率의 性別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全體 人口中에서 65歲以上 老人인구가 차지하는 比率이 男子老人의 경우는 1955年 2.8%에서 1985年 3.2%로 다소 增加한 데에 비해 女子老人의 경우는 1955年 3.8%에서 1985年 5.4%로 男子老人의 數에 비해 많았으며, 增加하는 比率도 높은 편이었다. 特히 65歲以上 老人人口의 절대수의 增加가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近藤式 長壽者率은 男子老人의 경우 1955年 1.3%, 1985年 1.7%였으며, 女子老人의 경우는 1955年 1.9%, 1985年 3.4%로 男子老人보다 높으며, 1985년에는 女子老人

이 男子老人의 約2倍가 되고 있다. 長壽者率의 增加指數에서도 1955年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85年 男子老人이 131, 女子老人이 179로 長壽하는 女子老人의 增加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全體 老人人口中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에 관한 性別 分布에서도 男子老人은 1955年 21.2%, 1985年 23.7%로 30年間의 增加指數는 112였으나, 女子老人은 1955年 23.9%, 1985年 33.8%로 全般의 比率로 높았으며, 增加指數도 141로 높게 나타났다.

結論의 으로 老人의 長壽動向은 近藤式 長壽者率로 본 것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傾向이 있어 우리나라는 長壽者가 늘어 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人口의 高齡化와 老年人口의 增加를 背景으로 해서 超高齡者(90歲以上의 老人)도 增加하기 시작하는 것을 意味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調査도 必要하다 하겠다.

다음에 長壽者率의 將來傾向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이 〈表3〉이다. 65歲以上 老人人口는 1990年에 207萬名이, 2000年에는 303萬名이 되며, 2015年에는 500萬名이 될 것으로 豫想됨과 同時에 全體 人口中 老人人口의 比率도 높아져 1990年 4.7%, 2000年 6.2%, 2015년에는 9.2%가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近藤式 長壽者率은 1990年 2.7%, 2020年 6.4%로 每年 增加하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老人人口中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도 1990年 29.9%, 2020年 35.0%로 다소 增加하는 傾向이 있었다. 將來의 長壽老人의 增減傾向을 살펴 본 結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急速의 으로 長壽하는 老人이 增加할 것으로 思料되어 保健醫療政策上 健康의 管理 및 看護를 必要로 하는 老人, 즉 臥床老人, 有病老人 및 痴呆老人의

表 2. 性別 老人人口 指標의 年度別 推移

單位:%

	65歲以上 老人人口數 및 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老年後期 老人比率	
	男 子	女 子	男 子	女 子	男 子	女 子
1955	300,896(2.8)	412,624(3.8)	1.3	1.9	21.2	23.9
1960	336,276(2.7)	487,227(3.9)	1.4	2.2	—	—
1966	378,324(2.6)	582,995(4.0)	1.3	2.3	23.9	28.5
1970	398,078(2.5)	641,300(4.1)	1.4	2.5	24.1	30.2
1975	458,387(2.6)	748,212(4.3)	1.3	2.5	23.0	31.2
1980	539,481(2.9)	906,633(4.9)	1.5	2.9	21.7	31.3
1985	652,079(3.2)	1,097,470(5.4)	1.7	3.4	23.7	33.8
增加指數	217(1.4)	266(142)	131	179	112	141

註) 增加指數는 1955年度를 100으로 한 指數이다.

表 3. 將來 老人人口의 數 및 老人指標의 性別 推計

單位:%

	65歲以上 老人人口		近藤式 長壽者率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		
	數(名)	比率(%)	全體	男子	女子	全體	男子	女子
1990	2,073,708 (100)	4.7 (100)	2.7 (100)	1.9 (100)	3.8 (100)	29.9 (100)	23.3 (100)	32.8 (100)
1995	2,456,610 (118)	5.2 (111)	3.1 (115)	2.2 (116)	4.0 (105)	30.5 (102)	25.0 (107)	34.0 (104)
2000	3,033,674 (146)	6.2 (132)	3.5 (130)	2.5 (132)	4.6 (121)	30.8 (103)	25.2 (108)	34.5 (105)
2005	3,768,458 (182)	7.3 (155)	4.3 (159)	3.2 (168)	5.4 (142)	29.9 (100)	23.2 (100)	34.6 (105)
2010	4,391,777 (212)	8.3 (177)	5.2 (193)	4.0 (210)	6.3 (166)	32.5 (109)	26.2 (112)	37.1 (113)
2015	5,009,442 (242)	9.2 (196)	5.8 (215)	4.7 (247)	7.0 (184)	35.8 (120)	30.1 (129)	40.3 (123)
2025	5,825,365 (181)	10.5 (223)	6.4 (237)	5.3 (279)	7.6 (200)	35.0 (117)	30.0 (129)	39.3 (120)

註) ( )은 1990年을 100으로 하여 계산한 增加指數이다.

資料) 韓國人口保健研究院 :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 및 保健醫療部門), 162~189, 1985

數가 많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老人을 對象으로 集中的인 管理가 可能한 地域社會 老人保健事業이 지금부터 推進되도록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趙留

香, 윤현숙, 1988).

<表4>와 <表5>는 市道地域別로 65歲以上 老人人口의 分布와 近藤式 長壽者率을 年度別로 살펴 본 것이다.

表 4. 65歲以上 老人人口의 市·道別 年度別 推移

單位:%

	1966	1970	1975	1980	1985	增加指數
서울특별시	1.9	1.8	2.1	2.5	2.9	153
부산직할시	2.0	1.9	2.0	2.3	2.6	130
대구직할시	-	-	-	-	3.0	-
인천직할시	-	-	-	-	2.9	-
경기도	3.0	3.0	3.3	3.5	4.2	14.0
강원도	2.8	2.9	3.4	4.2	5.1	182
충청북도	3.5	3.9	4.3	5.3	6.1	174
충청남도	3.5	3.8	4.1	4.9	5.5	157
전라북도	3.7	3.9	3.5	4.9	5.8	157
전라남도	4.1	4.3	4.4	5.0	5.4	132
경상북도	3.5	3.6	3.9	4.5	6.9	197
경상남도	4.0	4.2	4.3	4.5	5.0	125
제주도	5.9	5.6	5.3	5.1	5.2	88

註) ( )은 1966年을 100으로 하여 계산한 增加指數이다.

表 5. 近藤式 長壽者率의 市·道別 年度別 推移

單位: %

	1966	1970	1975	1980	1985	增加指數
서울특별시	1.0	1.0	1.1	1.3	1.7	170
부산직할시	1.0	1.0	1.0	1.2	1.5	150
대구직할시	-	-	-	-	1.7	-
인천직할시	-	-	-	-	1.6	-
경기도	1.6	1.7	1.7	1.9	2.4	150
강원도	1.5	1.6	1.7	2.3	2.9	193
충청북도	1.9	2.2	2.3	3.0	3.6	189
충청남도	1.9	2.1	2.3	2.8	3.3	174
전라북도	2.0	2.3	2.0	2.9	3.4	170
전라남도	2.3	2.6	2.7	3.1	3.4	148
경상북도	1.9	2.1	2.1	2.5	4.1	216
경상남도	2.2	2.5	2.4	2.7	3.0	136
제주도	3.5	3.7	3.4	3.4	3.6	103

註) 增加指數는 1966年度の 數值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表 6. 市·道別 老人人口의 分布, 1985年

單位: 名(%)

	老人人口의 數	近藤式長壽者數	老年後期老人의 數
서울特別市	279,647(16.0)	159,492(15.5)	76,670(14.6)
부산직할시	91,707( 5.2)	51,747( 5.0)	25,115( 4.8)
대구직할시	61,837( 3.5)	35,512( 3.5)	16,977( 3.2)
인천직할시	40,438( 2.3)	22,199( 2.2)	10,238( 1.9)
경기도	199,083(11.4)	113,523(11.1)	55,801(10.6)
강원도	88,383( 5.1)	50,403( 4.9)	24,116( 4.6)
충청북도	84,895( 4.9)	49,932( 4.9)	24,956( 4.7)
충청남도	164,177( 9.4)	97,892( 9.5)	50,388( 9.6)
전라북도	128,034( 7.3)	75,472( 7.4)	40,232( 7.7)
전라남도	203,649(11.6)	126,008(12.3)	70,390(13.4)
경상북도	206,973(11.8)	122,243(11.9)	62,925(12.0)
경상남도	175,288(10.8)	104,851(10.2)	57,156(10.9)
제주도	25,438( 1.5)	17,458( 1.7)	10,514( 2.0)
計	1,749,549(100.0)	1,026,732(100.0)	525,478(100.0)

資料)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人口 및 주택센서스報告, 1966-1985.

全體 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을 보면, 1966年은 제주도 地域이 5.9%로 가장 높았으나, 1985年은 경상북도 地域이 6.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충청북도(6.1%), 전라북도(5.8%)의 順이었다. 特히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市地域은 낮은 比率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의 增加도 1966年을 100

으로 하여 본 結果, 경상북도 地域이 增加指數 197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地域이 88로 오히려 1966年에 비해 줄어든 增加指數를 나타내고 있었다.

近藤式 長壽者率도 1966年에는 제주도 地域이 3.5%로 가장 높았으나, 1985年에는 경상북도 地域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過去 20年間의 增加指數에서도 216으로 가장

높았다. 역시 近藤式 長壽者率도 서울 特別市를 비롯한 市地域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老人人口의 數로 본 市道別 分布에서는 서울 特別市가 1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상북도 地域으로 11.8%였고 전라남도 地域으로 11.6%였다(표 6). 1975年の 人口센서스 報告를 分析한 李의 研究(이영환, 1978)에서는 서울, 부산의 市地域은 老人人口數가 많았으나, 全體 人口數에 대한 老人人口比率은 제주 地域(5.29%), 전남 地域(4.43%), 및 경남 地域(4.27%)이 높은 것으로 報告되고 있어 本 研究結果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10年間 老人人口의 變動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한편 郡別로 總人口에 대한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과 近藤式 長壽者率을 算定하여 指示한 것이 <그림1>이다. 1985年 現在 65歲以上의 老人人口比率과 近藤式 長壽者率이 높은 地域은 소백산맥의 산간 地域, 지리산부근 地域 및 南海의 몇個 海岸 地域임을 알 수 있다.

다시 近藤式 長壽者率을 郡別로 分析해 본 結果, 우리나라의 20個 長壽地域은 1985年 現在 남해군(6.7%), 서귀포시(6.3%), 군위군(6.2%), 안동군(6.0%), 하동군, 예천군(5.9%), 함양군(5.8%), 성주군, 금릉군(5.7%), 합천군, 남원군(5.6%), 산청군, 의성군, 순창군(5.5%), 거창군,

청도군, 영풍군, 고령군, 구례군(5.4%)의 順으로 나타났 다. 이들 地域은 우리나라의 平均 近藤式 長壽者率 2.5%에 비해 2倍以上의 長壽者率을 보이고 있다. 特히 경상 북도의 군위군과 안동군, 경상남도의 남해군, 제주도가 서귀포시가 6.0%를 넘는 最高의 長壽地域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地域은 全體 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도 대체로 높은 9.3%以上이었다. 즉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은 남해군 10.7%, 서귀포시 7.8%, 군위군 10.4%, 안동군 10.1%, 하동군 9.3%, 예천군 9.9%, 함양군 9.4%, 성주군 9.4%, 금릉군 9.4%, 합천군 9.6%, 남원군 9.2%, 산청군 9.3%, 의성군 9.3%, 순창군 9.0%, 거창군 8.9%, 청도군 9.2%, 영풍군 9.2%, 고령군 9.0%, 곡성군 8.6%, 구례군 8.2%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과 近藤式 長壽者率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長壽老人의 傾向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이 農村地域인 郡地域에 老人人口가 많은 것으로 思料되어 都農別 近藤式 長壽者率을 分析해 본 것이 <表7>이다. 市地域은 대부분 2.0%이하의 낮은 近藤式 長壽者率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國의 水準에서는 總인구중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이 市地域에는 3.0%인데 비해 邑地域에는 5.0%로 다소 높았으며, 面地域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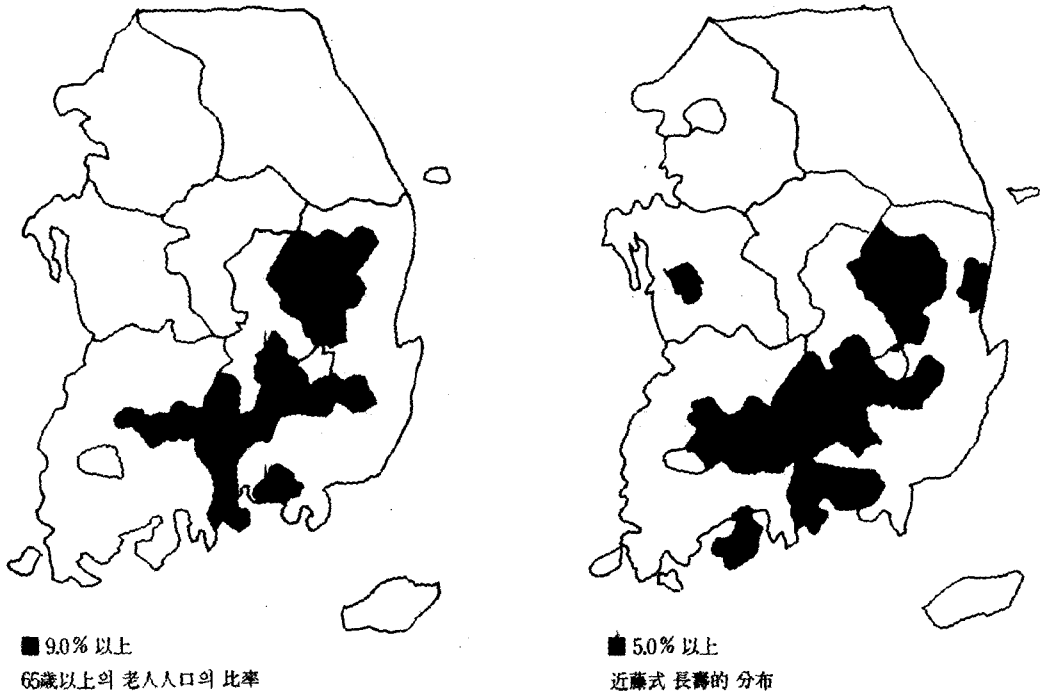


그림 1.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및 長壽者率의 地理的 分布

는 邑地域보다도 높은 7.8%로 市地域의 2倍以上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시 近藤式 長壽者率도 市地域의 1.7%에 비해 邑地域이 2.9%로 다소 높으며, 面地域은 市地域의

2倍以上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長壽老人은 郡地域의 農漁村 및 산간지역에 많이 分布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表 7. 都農別 老人人口率 및 長壽者率, 1985年

單位:%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市部	邑部	面部	市部	邑部	面部
全國	3.0	5.0	7.8	1.7	2.9	4.7
경기도	2.9	3.9	6.3	1.6	2.2	3.7
강원도	3.9	4.6	7.2	2.2	2.6	4.1
충청북도	3.8	5.4	8.5	2.2	3.1	5.0
충청남도	3.2	4.7	7.8	1.9	2.8	4.7
전라북도	3.6	5.5	8.0	2.1	3.2	4.8
전라남도	3.3	5.5	7.4	2.0	3.4	4.6
경상북도	3.9	6.1	9.0	2.3	3.6	5.4
경상남도	2.5	4.9	8.4	1.5	2.9	5.1
제주도	3.8	7.3	6.9	2.5	5.1	4.6

## 2. 長壽의 關聯要因 分析

앞의 分析에서 우리나라의 長壽者率 等の 長壽指標는 地域間에 따라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長壽者率은 都市地域보다 山野地域과 南쪽의 海岸地域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地理的 狀態別로 長壽老人의 數에 有意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長壽地域에 關係하는 要因은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없었다.

따라서 長壽에 影響하는 諸要因들과의 關係를 파악하기 위해서 長壽와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變數를 選定하여 重回歸分析을 實施하였다. 本研究에서 使用한 要因의 變數別 測定方法과 技術적 統計值를 나타낸 것이 <表 8>이다. 독립변수중에서는 地域面積當 人口密度, 農家人口의 比率, 인구 1,000名當 자동차대수 및 임야면적의 比率 等이 地域間의 큰 差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9>은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및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의 長壽指標에 11個 說明變數인 人口學의 變數, 社會·經濟學의 變數, 環境의 變數, 保健醫療資源 等の 保健醫療源의 條件 變數 및 都市化 變數 等の 獨立變數가 어느정도의 關聯性을 갖는가를 알고자 單純相關分析한 結果이다.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과는 選定된 11個 變數中에서 8個 變數가  $P<0.05 \sim P<0.001$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近藤式 長壽者率과는 7個 變數가, 老年後期 老人人口의 比率과는 3個 變數가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分類된 각 變數의 속성별로 볼 때 有意한 變數는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에 있어서는 人口 1,000各當 病床數, 農家人口의 比率 및 임야면적의 比率 等이 正의 相關을 보였으며, 人口轉出率, 상수도 보급율, 地域面積當 人口密度, 人口 1,000各當 자동차대수 및 1人堂 地方稅 부담액 等은 負의 높은 相關을 보였다. 近藤式 長壽者率에 있어서는도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과의 相關變數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特히 醫療保險適用比率이 負의 높은 相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P<0.01$ ). 그러나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에 있어서는 3個 變數만이  $P<0.01$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人口轉出率과 醫療保險適用比率가 負의 相關을 보였고, 平년기온이 正의 높은 相關을 보였다. 趙의 研究인 死亡率과 一部 保健醫療資源의 相關性 研究에서 보면, 50歲以上의 死亡構成比率을 말하는 比例死亡率에 있어서는 人口 10,000名當 病床數가 負의 높은 相關( $-0.70479, P<0.01$ )을 보인 바 있는데, 本研究結果에서는 近藤式 長壽者率에서 負의 相關( $-0.73229, P<0.05$ )를 나타내고 있어 같은 맥락에서 풀이해 볼 수 있다 하겠다(趙留香, 1982).



表 8. 分析에 사용된 變數 및 變數의 平均, 標準偏差

變 數	平均	標準偏差	범위
(중속변수)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	4.66	1.4039	2.6-6.9
近藤式 長壽者率	2.78	0.9103	1.5-4.1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	30.25	4.1922	25.2-41.3
(독립변수)			
人口轉出率(%)	19.90	4.7133	14.5-28.2
상수도 보급율(%)	77.56	15.4778	60.1-99.4
지역면적당 人口密度(名/km當)	3335.84	5140.1333	102-15,921
人口 1,000名當 병상수(床)	2.39	0.4591	1.7-3.0
평년기온(℃)	12.57	1.3041	11.0-15.5
평년습도(%)	71.46	3.0988	67-76
農家人口의 比率(%)	25.79	18.0647	0.2-46.3
人口 1,000名當 자동차수(대)	23.93	9.0346	15.5-46.2
1人當 지방세부담액(원)	34785.54	14447.9581	68127-20776
임야면적의 비율(%)	48.47	15.6821	18.7-70.6
醫療保險適用人口의 比率(%)	41.95	11.3161	28.7-64.1

(N=13)

表 9.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및 老年後期老人比率의 各 變數間의 單純相關係數

變 數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	近藤式 長壽者率	老年後期 老人人口의 比率
人口轉出率	-.8880*	-.92145**	-.67721**
상수도 보급율	-.78593*	-.68536*	-.00303
地域面積當 人口密度	-.81959*	-.80790**	-.48183
人口 1,000名當 병상수	.81247*	-.73229*	-.11234
평년기온	.04527	.19451	.75227**
평년습도	.49287	.51223	.46236
총인구중 農家人口의 比率	.98064**	.98385**	.59398
人口 1,000名當 자동차대수	-.82722*	-.79170**	-.37528
1人當 地域稅 부담액	-.82192***	-.81768	-.48638
총면적중 임야면적비율	.72453*	.70339	.33218
醫療保險適用比率	-.78144	-.82506**	-.67992**

\* p<0.001 \*\*p<0.01 \*\*\*p<0.05

다음 <表10>은全體人口中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에 대하여說明해 주는 11個獨立變數와의 假階的 重回歸分析의 結果이다. 먼저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에 대한 變數의 說明力은 99.9%로 선택변수가 모두 종속변수를 說明하였으며, 統計的有意水準은  $P < 0.01$  이었다. 선택된 說明變數中에서 가장 說明力이 강한 變數는 農家人口의 比率이었으며, 說明力이 96.2%로 매우 높았다. 特히 65歲以上 老人人口의 比率은 人口 1,000名當 病床數와 자동차대수가 적을수록, 1人當 地方稅 부담액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人口 1,000名當 病床數가 적을수록 老人人口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病床數가

醫療利用率과 관계있는 것을 意味하여 病床者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되었기 때문이겠다. 또한 人口轉出率이 높을수록 65歲以上 老人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結果는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이 높은 地域은 都市化要因에 의해 農村人口中 젊은 層의 都市流出로 인해서 생긴 過疎率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松崎는 大都市地域의 環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都市化에 의한 生活水準의 向上, 醫療機關의 整備 등의 要因이 作用하여 平均壽命이 延長된다고 언급하면서 現代에는 絶對적으로 農村地域이 都市보다 長壽에 유리한 것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松崎後久, 1982).

表 10.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과 各 變數間의 段階別 重回歸分析結果

Step	變 數	Multiple R	R <sup>2</sup>	Beta	B
1	農家人口의 比率	.98064	.96165	1.1632	.0904**
2	人口 1,000名當 病床數	.98691	.97399	-.1898	-.5804**
3	평년습도	.99457	.98916	-.3052	-.1383*
4	1人當 地方稅 부담액	.99639	.99280	.3157	.3067×10 <sup>-4**</sup>
5	人口轉出率	.99712	.99426	.0094	.0028**
6	임야면적의 比率	.99725	.99451	.0835	.0075*
7	상수도 보급율	.99738	.99476	.3119	.0283**
8	평년기온	.99819	.99638	-.1376	-.1481*
9	人口 1,000名當 자동차수	.99932	.99863	-.4541	-.0705**
10	지역면적당 人口密度	.99960	.99920	1722	.4703×10 <sup>-4**</sup>
11	醫療保險適用比率	.99990	.99980	-.1017	-.1262×10 <sup>-1*</sup>

(Constant=13.84418)

\*\*\* $p < 0.001$  \*\* $p < 0.01$  \* $p < 0.05$

近藤式 長壽者率과 各 變數間의 假階的 重回歸分析의 結果에서도 說明變數의 說明力은 99.9%로 높은 說明力을 가지고 있었다(表11). 近藤式 長壽者率에 대해서도 農家人口의 比率이 96.8%로 가장 說明力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長壽要因으로는 農耕地域의 特性이 크게 影響하는 것을 짐작케 한다.

近藤式 長壽者率에 影響하는 要因의 우선 順位를 보면 農家人口의 比率로 環境의 要因이 첫째였으며, 다음은 人口 1,000名當 자동차대수로 都市化 要因, 상수도 보급율과 1人當 地方稅 부담액으로 社會·經濟的 要因順으로 나타났다. 回歸係數  $\beta$  값을 보면 農家人口의 比率이 높을수록 또는 人口 1,000名當 자동차대수가 적을수록 長壽者率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松崎는 長壽지역의 決定에는 老年者의 平均壽命이 긴 지역과 簡使法으로써 超<sup>9</sup>高齡者率이 높은 地域이어야 한다고 提起하였는데, 우리나라도 平均壽命이 延長되는 추세에 있는 바 人口學的 統計資料에 대한 세밀한 檢討와 더불어 老人人口를 對象으로 한 具體的인 調査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近藤式 長壽者率의 한가지 指標만으로 長壽地域에 대한 것을 把握하는 것은 마흡한 점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老年後期 老人의 比率을 利用하여 分析하여 보았다.

分析結果는 <表12>와 같으나, 앞의 65歲以上의 老人人口比率 近藤式 長壽者率과는 다소 다른 樣相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老年後期 老人人口의 比率을 說明하는 說明力은 93.6%로 나타났으며 平년기온이 56.5%을

表 11. 近藤式 長壽者率과 各 變數間의 段階別 重回歸分析 結果

Step	變 數	Multiple R	R <sup>2</sup>	Beta	B
1	農家人口의 比率	.98385	.96796	1.3065	.0658**
2	人口 1,000名當 자동차대수	.99180	.98366	-.2238	-.0226**
3	평년습도	.99507	.99016	-.2575	-.0756*
4	상수도 보급율	.99650	.99302	.3149	.0185*
5	1人當 地方稅 부담액	.99716	.99433	.3118	.1964×10 <sup>-4**</sup>
6	임야면적의 比率	.99842	.99684	.0870	.0050*
7	人口轉出率	.99921	.99842	.0083	.0016**
8	평년기온	.99943	.99886	-.0420	-.0293*
9	醫療保險比率	.99963	.99927	-.1268	-.0102**
10	人口 1,000名當 病床數	.99981	.99962	-.0655	-.01299*
11	地域面積當 人口密度	.99990	.99981	.0719	.1275×10 <sup>-4**</sup>

(Constant=5.69199)

\*\*\*p<.001 \*p<.01

表 12.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과 各 變數間의 段階別 重回歸分析 結果

Step	變 數	Multiple R	R <sup>2</sup>	Beta	B
1	평년기온	.75227	.56591	.58044	1.86591**
2	醫療保險適用比率	.94004	.88368	-.08896	-.03295**
3	임야면적의 比率	.95723	.91630	-.00585	-.15638×10 <sup>-2*</sup>
4	人口轉出率	.96794	.93690	.40191	.35747**
5	1人當 地方稅 부담액	.98539	.97098	-.02675	-.77623×10 <sup>-5</sup>
6	人口 1,000名當 病床數	.98655	.97329	.44035	4.02099
7	農家人口의 比率	.99044	.98097	1.26681	.29398
8	地域面積當 人口密度	.99178	.98362	-.62407	.50897×10 <sup>-3</sup>
9	人口 1,000名當 자동차대수	.99538	.99077	.93450	.43362
10	평년습도	.99999	.99988	.24006	.32476
11	상수도 보급율	.99999	.99998	.00869	.23542×10 <sup>-2</sup>

(Constant= -47.85654)

\*\*p<.001 \*p<.01

註) Step 5~11는 참고로 제시하였다.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有意한 變數로는 醫療保險適用比率(-), 임야면적의 比率(-), 및 人口轉出率(+)  
의 順이었다. 이와 같이 選定된 11個 變數中에서 4個 變數만  
이 有意한 것으로 作用하였으며, 나머지 7個 變數는 統計  
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特히 農家人  
口의 比率이 有意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의 6  
5歲以上 老人人口比率과 近藤式 長壽者率에 있어서 有意  
하게 說明된 독립 變數들과는 다소 다른 樣相으로 說明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심층 分析이 요구된  
다.

#### IV. 結論 및 提言

人類에게 있어서 長壽하는 것은 누구나 추구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므로 長壽에 影響하는 要因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重要的 意味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本 研究의 目的은 長壽에 關한 動向을 長壽指標를 利用하여 1955年부터 1985年까지의 年度別 推移와 더불어 將來 展望 및 地域間의 差異를 分析, 檢討하는 한편 長壽者率에 影響하는 要因을 거시적 水準에서 把握하고자 사회·經濟的 要因, 人口·環境的 要因과 都市化 要因과 的 相關性을 分析, 檢討하는 것이었다.

本 研究에서 利用된 資料는 5年마다 實施되는 各 市道 人口센서스 資料를 기초로 하였으며, 將來 推計를 위해서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서 推計한 人口統計資料를 使用하였다. 한편 長壽者率에 關한 重回歸分析을 위해서 使用된 獨立變數에 대한 資料는 各 市道 統計年報, 韓國통계연감 및 保健社會統計年報를 利用하였다.

分析에서 從屬變數로 使用된 長壽指標는 全人口中 65歲以上의 老人人口比率, 近藤式 長壽者率과 老人人口中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를 취하였고, 獨立變數로는 人口密度, 全體 面積中 임야면적의 比率 평년기온, 평년습도, 全體 人口中 農家人口의 比率, 상수도 보급율, 1人當 地方稅 負擔額, 人口 1,000名當 자동차대수 및 人口轉出率 等 모두 11個 變數를 使用하였다.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은 結論으로 要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長壽의 動向은 統計的 分析 結果, 1955年에서 1985年의 約 30年間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의 增加와 더불어 70歲以上의 近藤式 長壽者率 및 老人人口中 老年後期 老人人口의 比率 等 모두가 增加하는 傾向이 있었다. 특히 近藤式 長壽者率의 增加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우리나라도 長壽者가 늘어나는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將來의 長壽者率의 推移를 본 結果에서도 계속 급격하게 增加할 것으로 展望되었다. 즉 近藤式 長壽者率은 1955年 1.7%, 1985年 2.5%, 2025年 6.4%로 展望되며,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는 1955年 3.3%, 1985年 3.9%, 였으나, 2025年 10.5%로 急増할 추세에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長壽者率은 地域에 따라 差異를 보였는데, 市地域보다 邑·面地域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는 1985年 現在 市部 3.0%, 邑部 5.0%, 面部 7.8%였으며, 近藤式 長壽者率은 各各 1.7%, 2.9%, 4.7%였다. 市道別로 보면 近藤式 長壽者率은 1985年 경상북도 地域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제주도 地域으로 3.6%, 전라남·북도 3.4% 順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長壽村의 實態가 分明하게 밝혀졌다. 近藤式의 長壽者率을 기초로 하여 살펴본 結果에서는 1985年 現在 남해군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귀포시(6.3%), 군위군(6.2%), 안동군(6.0%), 하동군, 예천

군(5.9%), 함양군(5.8%), 성주군, 금릉군(5.7%), 합천군, 남원군(5.6%)의 順이었다. 1985年 現在 65歲以上의 老人人口比率과 近藤式 長壽者率이 높은 地域은 全般的으로 소백산맥을 中心으로 하는 山間地域과, 지리산부근의 지역 및 南海의 海岸地域等으로 나타나, 이들 地域의 特性이 長壽에 影響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長壽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分析한 結果에서는 선택된 變數들이 65歲以上 老人人口比率과 近藤式 長壽者率 및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에 있어서 各各 99.9%, 99.9%, 96.7%의 높은 說明力을 보여 주었다. 즉 上記 選擇된 各種의 社會·經濟變數, 人口·環境的 變數, 및 都市化 變數들이 어느 정도 充分함을 알 수 있었다.

長壽指標에 가장 有意한 說明을 해 준 獨立變數는 全人口中 農家人口의 比率이었는데, 특히 老年後期 老人人口比率에 있어서는 人口轉出率이 가장 有意한 變數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農耕地域의 特性이 長壽에 至大한 影響을 미침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人口轉出率이 老人人口의 比率를 높게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本 研究의 結果를 통해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老人들이 年齡은 過去 戶籍의 未備로 인하여 正確하지 못한 點이 있는 바 지금이라도 長壽者에 대한 철저한 調查가 全國적으로 必要하다고 사료되며, 長壽者의 調查時에는 家系圖作成이 必須的이며, 호적을 철저하게 調查, 整理하여 추후 長壽者의 把握에 正確성을 기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또한 長壽의 要因分析에 있어서는 長壽에 影響을 미치는 因子만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같은 條件下에서 短命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研究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平均壽命이 아직 長壽國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長壽者의 存在 및 超高齡者의 年齡에 대한 具體的인 調查가 要求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原則적으로 平均壽命이 짧은 國家에서는 長壽村이 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平均壽命이 文明의 진보와 바르고 풍부한 食生活, 그리고 健康에 대한 바른 認識에 지지되어 늘어날 것이며, 平均壽命의 延長에 의해 高齡者의 數가 늘어남에 따라서 長壽者도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長壽의 祕訣은 우리나라의 長壽地域의 特性에서 얻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本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더욱 具體的인 長壽地域에 대한 研究가 要請된다 하겠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 한국통계연감, 1983-1987  
\_\_\_\_\_ : 총인구 및 주택 조사보고, 1960-1985
- 이영환 : 우리나라 老年人口增加에 관한 分析, 保健學論集, 15(1):43-46, 1978
- 趙留香, 윤현숙 : 老人에 대한 保健醫療開發을 위한 調査研究, 한림대학, 사회의학연구소, 1988
- 趙留香 : 우리나라 死亡率과 一部 保健醫療資源現況 및 그 相關性研究, 人口保健論集:79-95, 1982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 2000年을 향한 國家 長期發展構想(人口 및 保健醫療部間), 1985
- 原田ヨシ子 : 全國百歲以上高齡者の生活意識 について, 厚生の指標, 15(4):32-38, 1968
- 村井隆重 : 都市化と農村老人, 厚生の指標, 14(1): 17~22, 1967
- 松崎後久 : ドルカバンバ長壽村調査の檢討, 厚生の指標, 29(1):10-16, 1982
- \_\_\_\_\_ : 老人保健の理論と展開, 醫學書院, 1984
- C.Call Pegels: Health Care and the Elderly, 1984
- Haan M., Kapan G.A., Camacho T.: Poverty and Health-Prospective evidence from the Alameda County Study-, Am.J. Epidemiology, 125(6):989-998, 1987 June
- Leaf A.: Youth in Old Age, Mc Graw Hill, 1975
- Mazess R.B., Formen S.H.: Longevity and Age Exaggeration Vilcabamba, Ecuador, J.Gerontology, 34:94-98, 1979
- (주설명)
- 1) 100歲以上の 老人을 말한다.
  - 2) 參考文獻을 參照하기 바란다.
  - 3) 都市化의 概念은 行政上의 概念, 統計上의 概念 및 人口學上의 概念 等으로 區分할 수 있으므로 本研究에서도 都市化 要因으로 選擇된 變數는 人口學的 要因 및 社會·經濟的 要因으로도 說明될 수 있다고 본다.
  - 4) 老人人口中에서 90歲以上の 人口比率을 말한다.

(Abstracts)

## **The Factors affecting Longevity and its Changing Trend in Korea**

Cho, YooHyang

Mogpo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The changing trend of longevity from 1955 through 1985 and its interprovincial variation were studied with longevity rate as indicator.

In order to detect the affecting factors of longevity rate, eleven urbanizational, geographic-environmental, demographic and social-economic variables were employed to carry out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from Population Census Reports 1955-1985 published by EPB and Year book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tatistics 1986 published by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other reference.

Subsequent to that longevity rate decreased during 1950's it has increased continuously by the yeat of 1980's. This trend was especially remarkable in the south area and the GIRI mountain area in Korea.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vity rat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explained at the level of 93.7percent-99.9 percent. Longevity is a reflection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al and health resourses factor etc., longevity problems cannot be dealt with in isolation.

The possible research and services which could be provided by government will be discuss.